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3/3)	다음 주(3/10)	3/17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이빛나 성도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성경 봉독		이윤경 성도	편재천 성도	하유미 성도
식사 준비		장윤경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정리		김윤기	오숙현 순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9호 2019.3.3.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3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49장, 찬송가 292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07편 23-43절	이	윤	경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35:1-10	김	윤	기 목사
[두려운 현실 앞에서]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484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강	진 서리집사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30분 설교 : 이승재 전도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빛나 성도
 본 문: 엡 2:8-9
 설 교: 오직 은혜(1)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9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삼상 21:1-9
 설 교: 뉘으로 피신하는 다윗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신앙도서강독	주일 오후모임 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9주일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민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 말씀 요약: 사 35:1-10, 두려운 현실 앞에서

1. 주님을 보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앗수르가 예루살렘 앞에 이르렀을 때, 낙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34장),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35장). 그러므로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3,4절).

2.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까지 불의한 자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전 1:14-15; 4:1). 그런 소망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3,4절).

그때에 모든 장애는 나음을 입고, 생명이 없는 땅은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5-7절). 거기에는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대로가 있을 것이며, 큰 기쁨으로 그들이 주께로 나아갈 것입니다(8-10절).

3.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신 곳

히스기야는 이러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앗수르에게서 건짐을 받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의 통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낮고 구원을 얻습니다(마 11:5).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마 11:6). 주님은 죄로 인해 지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십니다(마 11:28-30). 주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한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